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14)

도꼬마리

(common cocklebur)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잡초로서 주로 빈터, 농로, 과수원, 목초지 등에 많이 발생된다. 잎이 가축에 유독하고 꼬투리가 가축에 들러붙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목축업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며 퇴화초지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꼬마리(학명: *Xanthium strumarium* L, 영명: common cocklebur)는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잡초다. 주로 빈터, 길가, 농로, 창고 주변, 과수원, 목초지 등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축 분을 사용한 곳에서 발생이 많다. 본래는 강물이 자주 넘쳐 범람한 지역이나 염류토양에 잘 견디는 식물이다.

전체에 강한 털이 밀생하고, 줄기는 높이 50~150cm, 녹색이며 흑자색의 반점이 있고, 잎은 넓은 삼각형 모양이고 잎 가장자리에는 크기가 다른 뾰족한 톱니가 있고 양면이 거칠다. 잎의 길이는 약 15cm정도로서 상당히 큰 편이다. 꽃은 황색으로서 8~9월에 피며, 한 주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 자웅동주로서, 열매가 주당 50~200개정도 열린다. 열매(수과, 瘦果)는 대추씨같이 생긴 타원형으로 곁에 달린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많아 사람이나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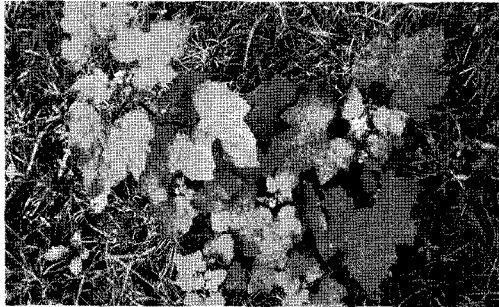
이인용
농촌진흥청

의 몸에 잘 달라붙어 열매가 널리 퍼진다.

열매는 약 1.5cm 내외로서 과실 안에 약 1cm 정도의 황록색 종자가 위 아래로 2개 들어있다. 위 종자는 작고, 아래종자는 크다. 두 종자 모

두 휴면성이 각각 달라 이듬해에 아래쪽의 큰 종자만 발아하고, 위쪽의 작은 종자는 발아하지 않는다.

이는 위 아래종자에 발아억제물질의 양이 다르고, 종피의 산소투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꼬마리 종자는 자연상태에서도 70%이상의 발아율을 보일 뿐 아니라 발아한 묘도 각종 장애에 강하고 초기의 성장속도도 빨라 확산이 쉽게 된다. 흙속에 묻어둔 종자는 6개월 후에 66%, 30개월 후에는 18%의 발아율을 나타내며 몇 년 뒤에는 사멸한다고 하나 수명이 16년에 이르는 것도 있다 한다. 또 물에 떠다니거



도꼬마리



도꼬마리 유식물

나 사람의 의복이나 동물의 털에 부착해서 이동한다. 열매 자체의 부력도 있으나, 표면의 뽁뽁한 가시가 기포를 만들기 때문에 열매의 부력은 30일까지 갈 수 있다.

도꼬마리는 알레르기를 강하게 일으키는 꽃가루를 생산하며, 줄기나 잎의 잔털도 알레르기와 피부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한다. 목초지에 발생하면 줄기와 잎의 거친 감촉도 동물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줄기와 잎의 잔털에서 내놓는 점액성 물질의 냄새도 동물의 비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축이 싫어한다.

특히 이 잡초는 잎이 가축에 유독하고 꼬투리가 가축에 들러붙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목축업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며 퇴화초지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꼬마리가 비농경지에 발생할 경우에는 디클로베닐입제를 발생전에 토양처리하고, 화본과 목초지에 발생할 경우 경엽처리 제초제인 디캄바액제, 메코프로프액제

방제약제 및 처리시기별 방제효과

■ 토양처리 효과

약제명	사용량 (10a)	시기별 방제효과(%)		
		3월 20일	6월 25일	7월 20일
디클로베닐입제	4kg	100	100	90

* 약제 살포시기 : 전년도 12월 중순경

■ 경엽처리 효과

약제명	사용량 (10a)	시기별 방제효과(%)	
		약제처리 15일 후	약제처리 40일 후
디캄바액제	100ml	100	100
메코프로프액제	500ml	95	95

* 약제 살포시기 : 초장 30cm 내외인 5월 중하순경

등을 생육초기(초장 30cm이내)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이들 경엽처리제는 광엽작물에 약해를 유발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도꼬마리 과실을 창이자(蒼耳子)라고 하여 달여 복용하면 해열, 두통, 동맥경화 예방에 효험이 있다고 하고, 과실을 달인 물로 두드러기나 마른버짐 등의 환부를 씻어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Y